

명청소설의 동아시아 전파와 교류

-《剪燈新話》-를 중심으로

崔 溶 澈*

<목 차>

1. 서 론
2. 명청소설의 전파양상과 독자층의 확산
3. 전등신화의 조선전파와 영향 및 간행
4. 전등신화의 일본과 월남에의 전파
5. 동아시아 각국의 중국소설 수용방식
6. 결 론

1. 서 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기에 시작된 새로운 방식의 중국문학연구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면서 학자들의 주목을 받은 분야는 지금까지 논외로 무시되어 오던 통속문학으로서의 小說에 관한 연구였다. 이미 梁啓超의 소설계 혁명의 영향에 의하여 금세기 초 중국의 식학들은 과거의 소설관에서 탈피하여 과감하고도 시의적절하게 고전소설에 대한 고증작업과 주제분석, 인물탐구 그리고 문화사회학적인 견지에서 폭넓은 연구를 시작하였다. 서구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신문학 운동을 제기했던 胡適은 스스로 《홍루몽》과 《수호전》 등을 비롯한 고전소설에 대한 판본과 작자에 대한 고증연구를 발표함으로써¹⁾ 소설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놓았다. 이어서 중국소설 판본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작업을 진행한 孫楷第 등의 노력으로 중국소설 연구의 기본적인 자료의 바탕은 마련되어 갔다.

* 고려대학교 중문과 교수

1) 胡適의 <紅樓夢考證>은 1921년 간행된 신식 표점 부호가 가미된 <紅樓夢>(上海 亞東圖書館)의 권두에 실려 처음 발표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듬해 蔡元培와의 유명한 紅學논쟁이 시작된다.

중국에서의 그러한 연구열에 발 맞추어 해외로 전파된 중국소설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진행되었고 작품의 주제와 관점에 대한 새로운 연구 시도가 일어났다. 孫楷第는 중국 내에서의 통속소설서목을 정리하고 이와 별도로 日本 東京에 소장된 중국소설을 조사하였으며 柳存仁은 영국 런던에 소장되어 있던 중국소설을 정밀 조사하여 해제작업을 통해 유럽에 전파된 일부 작품의 실체와 문화교류의 현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에서는 90년대 들어 급격하게 신장된 연구열기에 힘입어 奎章閣에 소장된 명대 화본소설집 《型世言》을 발굴하여 국제학계에 놀라운 충격을 주었으며 《九雲夢》의 영향으로 중국 문인에 의해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는 《九雲記》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차원에서 진행되기도 하였다. 또한 명대 초기 《剪燈新話》의 조선 전파는 한국소설의 발달에 촉진제가 되어 金時習의 《金鰲新話》가 나타나고, 지금까지 필사본으로만 전해졌다가 일본에서 비로소 간행되었을 것이라는 학계의 추정과는 달리 최근 朝鮮木版本을 발굴해냄으로써 소설의 창작과 간행, 전파에 따른 동아시아 문화의 폭넓은 교류현상에 주목하게 되었음은 국내 학계의 새로운 성과라고 할 수 있다.²⁾

중국학계에서도 불행한 근대사의 와중에서 수많은 중국소설이 해외로 유실되었던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던 중국무원의 古籍정리출판 계획의 일환으로 명청대의 회귀소설을 중심으로 중국 내와 해외의 자료를 영인 수집하여 北京과 上海에서 각각 《古本小說叢刊》(중화서국), 《古本小說集成》(상해고적출판사)과 같은 대규모 출판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전파되어 깊숙이 갈무리되어 있는 중국작품은 물론 세계적으로 전파된 중국소설 작품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화적 교류현상을 분석해 보는 일은 시급하고도 절실하게 필요한 연구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문학은 중국문화의 꽃이며 중국인의 사유와 인생관이 드러나는 문화유산이다. 그 중에서도 소설은 그들의 삶과 갖가지 문화의 현상들이 더할 수 없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는 문학장르다. 중국소설의 동아시아 전파는 동아시아各國과의 문화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중

2) 최용철 <금오신화 조선간본의 발굴과 그 의미>, 《중국소설연구회보》제39호, 1999
 최용철·張本義 <금오신화 조선간본의 발굴과 판본에 관한 고찰>, 《민족문화연구》제32호, 1999

하위층의 문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도구가 되었다. 서구로 전파된 중국소설은 동방세계에 막연한 동경의 눈초리를 보내던 서구인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동양인의 모습을 전해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한 동서양의 문화교류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중국소설의 한국전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중문화교류의 구체적 사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일찍부터 우리나라에는 중국의 古典筆記小說이 수없이 전래되었으며 우리나라 한문고전의 창작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明清代에 부쩍 늘어난 외교사절의 교류와 증인층 譯官들의 잦은 중국여행은 중국의 명작소설이 우리나라에 빠른 속도로 전래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본 연구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중국소설 전파 상황과 그 문화교류현상을 연구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이를 통해 문화전파의 힘과 문화교류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어느 한 국가만의 특수현상이 아니고 보편 타당한 원리가 있음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중국문학사에서 소설이란 장르가 등장한 것은 漢魏六朝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唐代 傳奇小說이나 宋元代的 話本小說도 이미 상당히 발달한 단편소설이지만 아무래도 문학사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개인의 삶과 고뇌가 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하고 중하위층의 평민문화가 강력하게 대두되어 사대부들조차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은 明清시기의 文言短篇小說과 白話長篇小說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명청소설의 발달과정과 다양한 유형의 존재양식을 살펴보고 특히 인쇄기술의 발달에 따른 작품의 대량 간행과 도서유통의 전국적인 상업화의 전개 그리고 급속한 전파의 힘에 의하여 형성된 독자층의 수용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소설의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중국은 中原文化를 중심으로 다양한 변방문화와의 문화적 교류와 충돌을 겪으면서 방대한 코스모폴리탄적인 국제문화를 형성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문화 선진국으로 군림하여 왔으며 唐宋元明清의 역대 통일제국을 거치면서 한국과 일본, 베트남 등지의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많은 문화를 전파하였고 또한 끊임없는 상호 문화교류를 진행시켜 왔다.

宋나라 때는 오랜 전란으로 중국 내에서 없어진 중요한 고서를 해외에서 찾

고자 노력하였으며 당시 高麗에 소장 중이던 상당수의 古書가 재필사되어 중국으로 역수출되기도 하였으며 《祖堂集》과 같은 불교경전은 20세기에 이르러 해인사의 고려대장경 속에 묻혀있던 것을 되찾아내기도 하였다. 소설의 경우, 문화적 전파와 교류의 수단으로 더 많이 활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사대부들에 의해 폄하되는 바람에 민간에 유실되고 도서관 깊은 서고에 파묻혀 있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최근 규장각에서 찾아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명대 화본소설집 《型世言》의 경우도 그 한가지 예다. 明初의 전기소설집으로 明清 文言小說의 鼻祖가 된 《剪燈新話》는 정작 중국에서 금서가 되는 바람에 완전한 원본이 회귀해지고 우리나라 조선초기 金時習에 의해 애독되고 明宗년간에 尹春年과 林芑에 의해 최초의 주석본인 《剪燈新話句解》가 간행됨에 따라 비로소 온전한 작품을 후세에 전할 수 있게 된 특이한 경우다. 임진왜란 시기에 日本에 전해져 간행되고 영향을 끼쳤던 이 책은 1917년에서야 중국으로 역수입되어 비로소 중국문학사를 완전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중국소설은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월남 등지에 무수히 전해졌지만 한국에 비해 비교적 전란의 피해를 덜 본 일본에서 많이 발굴되었다. “三言二拍”이나 《金瓶梅》 등의 온전한 판본이 그러한 예다.

15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동안 중국은 동아시아의 문화 중심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의 발상지로서 서구 여러 나라들로부터 신비로운 동방의 나라로서 인식되었으므로 중국의 소설작품이 유럽이나 미국으로까지 전해진 것이 적지 않다. 이미 柳存仁의 《倫敦(런던)所見中國小說書目》에서 그 일단을 보는 바와 같이 의외로 상당수의 작품이 전파되고 번역되어 문화교류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바 있으나 이에 관한 조사와 연구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필자는 중국소설의 해외전파 상황에 대해 폭넓은 자료조사를 통하여 그 규모와 경향을 파악하고 한국에 전래된 중국소설의 경우와 대비하여 문화전파의 양상과 현지 문화와의 충돌에 따른 문화 교류의 유형을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명청소설의 전파양상과 독자층의 확산

중국문학사에서 小說의 시대로 통칭되는 시기는 明清代이다. 明清시대라고 해서 詩나 散文 또는 戲曲이 발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전반적인 문학의 사회현상 중에서 소설의 위치가 가장 높았다고도 말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청시대를 소설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것은 역대 다양한 문학장르의 발달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소설이란 장르의 발달이 비교적 두드러진 시대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소설이 명청대에 이르러 비로소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소설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위진남북조에 이미 시작되어서 당대에 문언단편으로서 전기소설이 그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여 문인들의 환영을 받았고 송대에는 다시 한번 변신하여 백화로서의 話本小說이 대중화의 길을 개척하여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였던 것이다.

문언소설과 백화소설의 전통은 宋明 講史話本을 거쳐 元末明初에 장편소설의 출현을 예고하였고 《三國志演義》와 《水滸傳》의 탄생은 마침내 소설의 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 明代 中期이후에 나온 《西遊記》와 《金瓶梅》가 합세하여 四大奇書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야기꾼으로부터 시작된 단편화본과 강사 화본은 《금병매》를 시작으로 문인의 독창적인 창작으로 그 방향을 선회하여 다수의 문인창작 소설이 등장하게 되었고 때마침 불어닥친 性靈의 自由와 思想 開放의 물결을 타고 마침내 고급 지식인들로부터 비상한 주목을 받아 문단의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물론 당시의 문인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詩文을 중시하면서 스스로 詩文의 作家로서 자부하였지만 소설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진보적인 小說觀을 개진하여 소설의 시대를 확고하게 자리잡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明末의 혁신적인 사상가 李卓吾가 소설미학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水滸傳》비평으로서 처음으로 小說學에 참여한 이후 명말 청초의 수많은 작가와 비평가들이 본격적인 소설의 창작과 비평, 출판과 전파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음은 이 시대를 본격적인 소설의 시대로 만들어 가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소설작가 馮夢龍과 凌濛初, 陸人龍 등과 비평가 金聖嘆, 毛宗

崗, 張竹坡 등이 그 뒤를 이어 나왔고 그들의 성과는 얼마 후 曹雪芹의 《紅樓夢》이 처음부터 脂硯齋 批評本으로서 탄생하도록 만들었다. 이 시기에 소설은 이미 진보적이면서 불우했던 문인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표출할 수 있는 문학장르로서 충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전통사회의 문화에 대한 비판과 수용을 겸하여 당시대의 사회적 현상을 드러내는 문화 매체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화 속의 소설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면 明清時代에 小說의 位相이 크게 제고되었던 원인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시기에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요구가 여러 가지 문학장르를 통하여 표출되었던 것인데 보수적인 고위층의 문인들이 여전히 시문을 즐기고 있을 때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회적 개혁을 의도하는 문인 혹은 과거에 낙방하였거나 가문이 몰락한 문인들은 戲曲이나 小說과 같은 통속문학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자 했다. 한편 명대 후기이후 급속하게 발전하는 出版文化와 더불어 文化的 商業主義의 만연으로 인하여³⁾ 소설의 창작은 단순한 글쓰기를 떠나 하나의 인기있는 직업으로서 까지 발전하였고 명말의 江南지역에는 특히 蘇州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출판의 메카가 만들어져 수많은 출판인과 작가들이 모여들었고 또 새롭게 양산되기도 했다. 당시 중국의 강남지역은 경제, 문화적 중심지로서 우수한 문인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고 실제로 명청대에는 江蘇省과 浙江省 지역의 進士출신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별도로 한 때 福建省 建陽지방에서 熊大木을 중심으로 소설의 간행이 활발하게 이뤄졌었던 사실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⁴⁾ 명청대의 소설은 대부분 이러한 지역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창작과 비평이 진행되었고 출판과 보급 또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사회저변의 폭넓은 소설애호의 불이 중상위층에 까지 이르자 보수적인 고위 문인들은 도덕적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게 되

3) 소설속에 묘사된 상인의 형상은 邵毅平<傳統中國商人的文學呈現>, 陳大康의 <明代商賈與世風>등에 잘 묘사되어 있다. 이는 물론 문인들의 눈에 비친 상인의 모습술 소설 속에 그려 넣은 것이지만, 문인 자신들의 상업화 현상도 크게 반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馮夢龍이나 凌濛初의 경쟁적인 소설집 간행의 예에서 그러한 현상을 엿볼 수 있다.

4) 陳大康의 《通俗小說的歷史軌跡》(호남출판사, 1993)중의 <關於熊大木的名與字>를 참고할 것.

는데 그 결과 《剪燈新話》가 중국 최초의 금지소설로 지목되게 된다. 여기서 明初 文言小說의 대표작인 이 작품의 창작과정과 전파, 독자와 영향 그리고 금서조치 이후의 해외전파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剪燈新話》의 출현은 형식상 당송전기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지만, 작자가 살아온 元末明初의 동란기라는 시대의 아픔을 밑그림으로 깔면서 민중의 삶과 애환을 傳奇小說의 형식에 의해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명작으로 자리잡아 폭넓은 반향을 이끌어내고 있다. 瞿佑는 천재적 文才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한 문인으로서 말단 학관의 지위에 있다가 급기야 明初 황실내부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양이 되어⁵⁾ 그의 나이 62세 때 河北省 涿鹿의 관리장성 밖 保安이란 곳에 귀양 가게 된다. 이곳에서 17년 간의 귀양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이미 79세의 노인이었다.

《剪燈新話》는 그가 32세 때(1378) 仁和縣學에서 訓導를 하고 있을 무렵 엮은 것이다. 그 해 6월에 쓴 서문의 말미에는 杭州吳山大隱堂에서 썼다는 서명을 남기고 있다. 당시 그의 책을 위해 凌雲翰(1378)이 서문을 써 주었고, 몇 년 뒤에는 다시 吳植(1381)이 서문을 썼으며, 金晷(1381)은 발문을 써주었다. 또 그의 나이 43세 때엔 桂衡(1389)이 서문을 쓰기도 하였다. 당시 그의 교유 관계는 매우 폭넓었으며 그의 작품에 대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동안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瞿佑가 保安에서 귀양 생활 중에 있을 때 《전등신화》는 이미 세간에 널리 전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江西省 廬陵사람 李昌祺(李楨)는 당시 廣西의 房山에서 이 책을 보고⁶⁾ 이를 본받아서 1420년에 《剪燈餘話》를 간행하게 된다. 아마도 그 후 이 두 책은 함께 널리 전해져 읽히고 있었던 모양이다. 李昌祺도

- 5) 瞿佑는 40대와 50대 초반에 仁和, 臨安, 宜陽 등의 學官을 지내다가 54세에는 從八品에 해당하는 國子監 助教가 되었다가 57세에 周王 朱橚(永樂帝의 同母弟)의 王府에서 正五品인 長史를 맡게 된다. 그가 귀양을 가게 된 것은 표면상 周王의 보필을 잘 못했다는 것이지만 형제간의 알력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실상 그를 희생양을 삼았던 것이라고 보고 있다. 徐朔方 <瞿佑의 剪燈新話及其在近鄰韓越和日本的回響>참고, 《小說考信編》(상해고적출판사, 1997)에 수록.
- 6) 李昌祺의 <剪燈餘話序>(1419)에 의하면 “그 후 7년쯤 지나 房山에 있었는데 어떤 분이 錢塘의 瞿氏가 지은 《剪燈新話》를 내게 보내와 거들 좋아하다가 마침내 이를 본받아 效顰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학계에서는 이 책을 본 시기를 대략 1412년쯤으로 잡고 있다.

서문에서 “近來 錢塘의 瞿氏가 지은 《剪燈新話》가 모두 신기하고 괴이한 이야기를 싣고 있어 사람들이 다투어 기쁘게 전하고 즐겨 말하여 마침내 기이한 이야기가 세상에 성행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전등신화》의 영향으로 《剪燈餘話》가 간행되어 나왔던 바로 그 해 胡子昂이 興和의 守備를 맡아 부임하였다가 일부러 二百餘里 떨어진 保安으로 瞿佑를 찾아왔다. 그는 四川 浦江에서 구입한 《전등신화》를 가져와 작자인 瞿佑에게 보여주면서 교정을 부탁했다. 이는 唐孟高(즉 唐岳)와 汪彦齡이 정교하게 필사한 판본이었다. 《전등신화》는 당시 일부 지역에서 간행된 적도 있었지만 이처럼 호사가들이 필사로 옮겨 적은 것들이 전해지고도 있었던 것이다. 瞿佑는 胡子昂이 가져온 것을 근거로 하여 새로 교감을 한 重校本을 만들었다. 그리고 <重校剪燈新話後序>를 썼다. 1378년 그가 32세 때 처음 썼을 때부터 무려 44년이 지난 1421년 그의 나이 75세일 때 귀양지인 保安에서 쓴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찍이 《剪燈錄》의 各集 끝에 붙여두었던 네 수의 詩를 기억해 내서 다시 인용하고 있다. 이상 각종 서문을 인용한 판본은 조선에서 간행되었다가 일본에 전해진 《剪燈新話句解》의 내각문고 소장판본에 일본 문인 林羅山の 기록으로 적힌 것이었다. 그 시의 말미에는 다시 “姪瞿暹刊行”의 다섯 글자가 있어서 이 판본이 결국 瞿佑의 조카에 의해 최종 간행된 중간본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책은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儒生들에게도 널리 퍼지고 심지어 당시 國子監의 監生에게 까지 유행하여 끝내 國子監 祭酒 李時勉의 지목을 받게 되었다. 그는 1442년 2월에 상소문을 올려 이 책의 금지조치를 청원했다. “근간에 속된 유생이 있어 괴이한 사건을 만들고 근거없는 말을 꾸미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등신화》와 같은 책이 바로 그러한 것인데 “시정의 경박한 무리들이 다투어 읽고 낭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전을 공부하려는 젊잖은 유생들까지도 올바른 학문의 길을 버리고 밤낮으로 이런 내용을 익혔다가 답론의 소재거리로 삼고 있으니 이를 엄히 금지시키지 않으면 사실과 이단이 날로 성하고 민심을 어지럽히게 될 것”⁷⁾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금서조치의 영향 때

7) 李時勉의 상소문은 明나라 《英宗實錄》卷九十에 수록되어 있고, 후에 顧炎武의 《日知錄》卷四「禁小說」에서 재인용하고 있다. “近有俗儒，假託怪異之事，飾以無根之言，如《剪燈新話》之類，不惟市井輕浮之徒，爭相誦習，至於經生儒士，多舍正學不講，日夜記憶，以資談論。若不嚴禁，恐邪說興端，日新月盛，惑亂人心。”

문이었는지 《전등신화》의 전파는 이후 급속하게 위축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현존하는 판본으로 明代 刊本이 일부 있지만 그리 널리 전파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1957년 周夷가 고전문학출판사에서 《전등신화》를 교감하여 낼 때 上海圖書館에서 본 明代 刊本을 소개한 바 있다. 일부가 없어진 완전하지 못한 판본이지만 上圖下文의 형태였음은 권두에 실린 영인자료에서 알 수가 있다. 上海圖書館에는 明代 張光啓校本으로 《新刊京傳足本剪燈新話》2권이 《新刊校正足本剪燈餘話》 2권과 합본이 되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전한다.⁸⁾

필자가 조사한 北京圖書館 소장본 중에도 이런 판본이 있어 주목된다. 《剪燈新話大全》의 이름으로 된 이 판본은 속표지의 상단에 “清江書堂”, 상부에 그림(형태로 보아서 <水宮慶會錄>의 삽화에 해당되는 것을 표지의 것으로 활용함)이 있고 하단에 “重增附錄(湖海)剪燈新話”의 제목이 큰 글씨로, 좌우 양측에 “編成神異新奇事, 敦尙人倫節義□”의 구절이 작은 글씨로 새겨 있다. 본문이 시작되는 첫 장의 제목은 “新增補相剪燈新話大全卷之一”과 같이 되어 있고 상단부에 插圖가 있으며 본문 앞에 “古杭山陽瞿佑宗吉編著/清江書堂楊氏重校刊行/書林正己詹吾孟簡圖相”이라고 쓰여 있다. “卷之二”의 서두에서는 약간 변화시켜 “古杭瞿佑宗吉編著/書林楊氏清江重刊”으로 고쳐 적고 있다. 마지막 <綠衣人傳>의 말미에 “正德辛未孟秋/楊氏清江堂刊”이라고 간기를 새겨 두어서 이 책이 명나라 武宗 6년(1511)에 복건 建陽의 간행된 책임을 알 수 있다. 권말에 후인의 기록으로 보이는 필사가 있다. 매 쪽마다 上圖下文인데 그림 아래로 14행 24자씩 된 黑口四周單邊의 판형을 갖추고 있다. 모두 四卷附錄一卷으로 되어 있는 이 《전등신화대전》의 뒤에는 따로 《剪燈餘話大全》(속표지 제목은 “新增全相湖海新奇剪燈餘話大全四卷”)이 붙어 있다.

北京圖書館에는 또 하나의 明代 삽화본 《전등신화》가 있다. 이 책은 현재 《전등여화》1-3권, 《전등신화》제4권만이 들어있는데 첫 표지에는 《剪燈餘話》의 題簽이외에 후인의 필사로 “異板繪入/ 福開先生持本/ 新話合刻, 珍書也”라 쓰여 있어 이 책이 당시 이미 귀중서로 간주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전등신화》는 본문에 앞서 “山陽瞿佑宗吉著/新安黃正位黃叔校”와 같이 작자와 더불어 교정자를 밝혀두고 있는데 萬曆 34년(1606)에 나온 黃正位の 간본이

8) 박현규 <충남대 소장조선 임진란이전 목활자본 전등신화>, 《전등신화》(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1999) 수록.

다. 원문은 卷之四 부분만 있지만 수록된 그림은 <龍堂靈會錄>, <太虛司法傳>, <修文舍人傳> 등 卷之四 부분의 것과 함께 <三山福地志>와 <華亭逢故人記> 등 卷之一의 것도 들어있다. 이 책의 원문과 삽화의 인쇄상태가 비교적 정교하고 그림은 전면 삽화로 되어 있다.⁹⁾

이밖에도 삽화가 없는 明 刊本 《剪燈新話》四卷이 있는데 권수의 서명은 “山陽瞿祐宗吉著”로 작자만 밝히고 있으며 10행에 19자의 판형으로 되어 있다. 다만 권수에 실린 瞿祐의 서문의 말미에 “洪武戊午歲六月朔日山陽瞿祐書”라고만 써서 “洪武十一年歲次戊午六月朔日山陽瞿祐書於吳山大隱堂”이라고 밝힌 조선판 《剪燈新話句解》(奎章閣本과 일본 內閣文庫本이 동일함)의 것과 달라 주목된다. 조선본이 원본에 가까운 판본 계통을 따른 것임이 분명하다.

중국의 판본은 조선에 전해진 이후에 김시습의 《금오신화》 등이 창작되고 다시 주석을 덧붙인 《剪燈新話句解》가 나와 朝鮮 전역과 日本 등지로 전해져서 이 작품의 이야기를 광범위하게 전파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중국으로도 역수출되어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北京大學圖書館에는 1633년 朝鮮에서 간행된 《剪燈新話句解》본이 소장되어 있다. 서문과 목록 등은 없고 상하 2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상권이 68장, 하권이 60장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의 표지에는 “細畦藏書之印”의 陽刻篆書印(5.2cm×3cm)이 찍혀있다. 소장자의 신분은 불명이다. 《句解》본이 중국본과 다른 것은 중국판본이 대체로 四卷으로 나누어 제3권의 첫 작품이 <富貴發迹司志>로부터 실린 것에 비하여 《句解》본은 下卷의 첫번째 작품이 <永州野廟記>부터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는 “崇禎六年癸酉六月日開刊”이라는 刊記가 있다.

3. 전등신화의 조선전파와 영향 및 간행

《전등신화》가 조선에 전래된 것은 金時習이 《금오신화》를 쓰기 이전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 <題剪燈新話後>의 시를 통해 명백히 알 수 있는데 《금

9) 《剪燈新話》의 삽화에 대해서는 좀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에서 명 판본의 삽화가 일부 남아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나라 《중국소설회모본》속의 일부 《剪燈新話》관련 삽화와 일본에서 나온 《伽婢子》속의 삽화 등의 그림 내용을 비교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신화》가 그가 금오산에 거처할 때(1465-1471) 지어진 것으로 볼 때 시의 창작연대는 김시습의 31세 때인 1465년 이전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 명나라에서 《전등신화》와 《전등여화》가 함께 유통되고 있었다고 본다면 《剪燈餘話》의 한 대목이 들어있는 《龍飛御天歌》의 주해가 만들어지던 1443년 이전에는 이미 들어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감 제주 李時勉이 금서요청을 하기 전에 나온 《전등신화》와 《전등여화》가 모두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成宗 4년(1464)에 李邊이 편찬한 《訓世評話》에도 《전등신화》속의 <愛卿傳>한 대목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당시 《전등신화》의 전파가 상당히 보편화 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진다. 《훈세평화》에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언교사가 실려있고 매편마다 이를 당시의 백화문으로 번역하여 수록하여 중국어 교과서로서 활용하였던 책이다. 李邊은 중국을 30여 차례나 다녀올 만큼 중국어에 능통하였고 이 책은 그의 만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조선왕조의 국왕 중에서 노골적으로 소설을 구독하고자 했던 임금인 燕山君 밖에 없을 것이다. 그만큼 그는 세간의 유포적 억압이나 대신들의 간언을 뿌리치고 과감하고 독특한 언행을 했던 사람이다. 북경에 가는 사신에게 《전등신화》와 《전등여화》 등을 사 오라고 하명하였는데 그것은 연산군12년(1506) 4월과 8월의 일이었다. 그러나 곧바로 그해 9월에 폐위되었으므로 그의 명령은 실행되지 못했을 것이다. 중종6년(1511)에도 조정에서는 엉뚱하게도 《설공찬전》문제를 논의하다가 《전등신화》의 가치에 대해서조차 논의하는 일이 있었다. 이처럼 조선의 조정에서는 대신들이 대부분 이 책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사대부들이나 문인들에게도 이 책은 널리 알려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에서 《전등신화》의 판본이 드물게 전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차례 간행되고 있다. 《전등신화구해》본이 나오기 전에도 조선에서는 《전등신화》의 원문만을 목활자로 간행한 바도 있었다. 현재 충남대 도서관에 소장중인 《전등신화》는 구해가 달려 있지 않은 조선의 목활자본이다.¹⁰⁾ 그리

10) 충남대 소장본의 목록카드에는 도활자라고 쓰여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목활자로 보고 있다. 박현규 <충남대소장 조선임진란이전 목활자본 전등신화>참조, 《전등신화》영인본, 선문대

나 구해본과 비교하면 전체를 4권으로 나누어 “剪燈新話卷之一”등으로 표시하였고 마지막 <추향정기>의 앞에는 “剪燈新話附錄”으로 표시했다. 그리고 각권의 서두 둘째 줄 하단에 “錢塘瞿佑宗吉著”라고 서명했다. 이 점은 후에 나온 <전등신화구해>의 체제나 서명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에 전해진 판본의 형태를 고찰하는데 하나의 단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明宗연간에는 두 차례나 연달아 <전등신화구해>가 간행된 바 있다. 그리고 이 판본은 급속하게 전파되었다. 처음에는 尹春年과 林芑가 함께 주해를 시작하였으나 윤춘년이 외직으로 나가자 임기가 단독으로 주해를 완성하였다. 초간본은 1547년 禮部尙史 宋蕢에게 부탁하여 간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목판으로 출간하지 못하고 1549년 목활자로 간행하였다. 하지만 여기저기 빠지고 잘 못된 곳이 많았다. 후에 윤춘년이 校書館 提調가 되자 관원인 尹繼延이 목판으로 다시 간행토록 품의하였다. 林芑는 초간본의 주해를 정리하고 이를 尹春年이 訂正하여 1559년에 尹繼延이 校書館에서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선조연간에 각각 원주와 영천 등지에서 <전등신화>가 찍혔다는 기록이 <고사촬요>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전등신화구해>가 지방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간행되어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林芑는 吏文學官으로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중국통이었다. 그는 서얼 출신이었지만 중국을 여러 차례 드나들고 그 공으로 상까지 받은 경력이 있었다. 중국에서도 없는 주해본 <전등신화>를 만든 林芑는 한중소설 비교연구사에서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尹春年은 당시 문화계 인물로서 최고의 권력을 지닌 인물이었는데 金時習을 추앙하여 그의 매월당문집을 수집, 정리하는데 많은 공을 세웠고 특히 최근 발굴된 <金鰲新話>의 朝鮮목판본을 편집하였고 실질적인 刊行者로서 보아야 할 인물이다. 지금까지는 그가 <剪燈新話句解>의 구해 작업에 일시적으로 동참하였고 重刊本의 訂正과 간행에 관여한 것으로만 알았지만 <금오신화>의 간행에도 직접적인 주도자라는 점에서 새롭게 부각되어야 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임진왜란(1592-1597) 때 일본으로 전해진 많은 조선 간행본 서적 중에는 <금오신화>와 <전등신화구해>가 포함되어 있었고 일본에서 폭넓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전등신화>의 경우 그후에도 일본 사신의 요청에 의해 전해

준 적이 있다는 기록이 왕조실록에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단 한차례 목판본으로 간행이 되었다가 일본으로 전해져 훈점본과 평점본이 계속 나와 전해졌던 김시습의 《금오신화》와는 달리 《전등신화》는 조선 후기에도 여전히 폭넓은 전파를 계속하여 방각본이 수도 없이 나왔다. 日本 内閣文庫에 소장된 《전등신화구해》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많은 서문과 발문 등이 일본문인 하야시라산(林羅山)의 글씨로 필사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대 규장각에 그 원본에 해당되는 듯한 판각된 서발문이 실린 판본이 있어 그 전파의 유래를 짐작할 수 있다. 필사의 자형이나 판형을 비교하면 일단 동일한 형태의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권말에 林芑의 <剪燈新話句解跋>까지 실려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내각문고본의 마지막에 실린 尹春年의 <題註解剪燈新話後> 한 편만은 규장각본에도 실려있지 않아서 이 글의 내력이 궁금하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中國小說繪模本》에는 1762년 完山李氏가 쓴 서문이 실려있고 중국소설의 다양한 작품들로부터 새로 그려 넣은 128쪽의 삽화가 있는데 그 중에 《전등신화》 삽화 4편이 포함되어 있어¹¹⁾ 그 시기에 조선에 전래되었던 판본에 삽화가 들어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실제로 중국의 北京도서관에 소장된 正德6년(1511)의 楊氏清江堂刻本 《剪燈新話大全》이 上圖下文으로 되어 있어 그러한 가능성을 더욱 짚게 하고 있다.

20세기 들어서도 《전등신화》의 열기는 여전히 계속되어 1916년 “東溪朴頤陽懸吐”라고 본문 앞에 밝혀져 있는 《諺文懸吐剪燈新話》(上下)가 京城唯一書館·新舊書林에서 나오기도 하였다. 원문에 한글 토씨가 달려 있는 것으로 일제 초기에 유행하던 판본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원문 자체는 많이 읽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번역본은 그다지 보이지 않고 있다. 樂善齋本 《태평광기언해》에 《전등신화》와 《전등여화》의 일부 번역문이 들어있어 당시 문인들이 번역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¹²⁾ 완전한 번역본이 전해지지는 않았다. 최근에는 19세기 후반에 번역된

11) 중앙도서관 소장의 원제는 《支那歷史繪模本》，실제로 소설의 삽화를 엮은 것이기에 이름을 바꿔 《中國歷史繪模本》(박재연편)으로 하여 강원대 출판부에서 간행했음. 《전등신화》의 삽화는 108화 <牡丹燈記>, 109화의 <金鳳釵記>, 110화의 <水宮慶會錄>(실제 水宮大宴이라 이름함), 127화의 <申陽洞記> 등 네 편이 들어있다.
12) 낙선재에 소장된 9권본 《태평광기언해》에는 《태평광기》의 원문이 아닌 작품이 10여종 들어있는데 그 중의 일부다.

것으로 보이는 《剪燈新話》번역이 단국대학교에 소장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전문이 모두 번역된 완역본은 아니고 앞부분 10편만의 번역만이 전해지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소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현대 번역으로는 1950년 3월에 尹泰榮에 의해 번역되어 서울 眞誠堂에서 간행된 《전등신화》를 꼽을 수 있는데 역시 안타깝게도 10편만 수록된 上卷만 간행되고 하권은 6.25의 발발로 인해 간행이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완전한 번역은 李慶善에 의해 번역되어 1971년 乙酉文化社에서 나온 《전등신화》가 유일하다.

4. 《전등신화》의 일본과 월남에의 전파

명대 전기소설 《剪燈新話》의 동아시아 각국에 대한 전파양상은 실질적인 문화교류의 시각에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瞿佑와 金時習은 각각 왕조교체기 혹은 정권교체기의 격동기를 살아오면서 세상의 온갖 불행한 사연들을 보고 듣게 되었으며 이를 전기소설의 기법으로 그려내게 되는데 《전등신화》가 瞿佑의 나이 32세때 초간본이 편찬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금오신화》의 경우도 김시습이 경주 金鰲山에서 머물고 있던 31세이후 37세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두 작가 모두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사회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분출하던 시기에 작품을 썼음을 알 수 있다. 김시습은 중국문화에 대한 수용의 태도를 보이면서도 이를 가능한 우리의 문화 여건에 알맞도록 만들어 우리의 독자들을 이끌어 들이는 전기소설을 창작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조선의 패설문학은 상당히 성행하고 있었으며 또한 김시습 자신이 중국과 조선의 차이를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전등신화》와 같은 외래적인 문화 충격에 의하여 곧바로 우리의 독특한 문학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본다.

《전등신화》와 《금오신화》의 일본 전파는 임진왜란이라는 중요한 계기에 의해 이뤄지지만 구체적인 판본의 전파상황이 林羅山(하야시라잔, 1583-1657)이라는 문인과 구체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점도 더욱 주목되는 이유의 하나다. 현재 일본 내각문고본의 《전등신화구해》에는 상권에 5편의 서발문이 들어있

고 하권에 6편의 서발문이 들어 있는데 모두 林羅山의 글로 필사된 글이다. 마지막 대목에는 “壬寅年(1602) 겨울 10월 5일 旅軒의 등불아래에서 朱墨의 傍點을 마치면서 書生 林信勝(즉 林羅山)이 기록함”¹³⁾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임기가 짐석하고 윤춘년이 정정한 《전동신화구해》의 목판본이 나온 것은 1559년인데 만약 임진왜란 무렵에 일본에 전해졌다면 불과 수년만에 임라산이 이를 꼼꼼히 독파하고 다른 판본에서 서발문을 이 곳에 옮겨 적었다는 것이다. 《금오신화》는 김시습의 원본은 그 존재를 알 수 없고 윤춘년이 편집하고 1565년 이전에 간행한 조선목판본이 이번에 대련도서관에서 발굴한 판본인데 역시 임진왜란 무렵에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규명되고 있다. 현존 판본의 권두에 찍힌 소장인을 통해 추정하면, 임란시기에 한양에 입성하였던 왜장 浮田秀家가 상당수의 조선 간본을 가지고 귀국하였는데 후에 가족의 병을 고쳐준 의원 曲直瀬正琳에게 이를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판본에는 養安院藏書라는 도장이 찍혀있다. 이 책은 후에 栗田萬次郎을 거쳐 大谷光瑞의 장서에 편입되어 중국 대련도서관에 수장된 것이다. 한편 이 책 혹은 이와 동일한 조선 목판본은 林羅山에게 전해져 道春(林羅山) 訓點本으로 만들어져 1653년(承應本)에 처음 간행되었고 이어서 1660년(萬治本)과 1673년(寬文本)에도 중간된 바 있다. 그리고 보면 林羅山은 20세 약관의 나이에 조선판 《전동신화구해》에 구두 방점을 찍었고, 그의 만년인 71세에는 조선간본 《금오신화》를 훈점본으로 간행했다는 말이 된다. 그는 분명 조선 간행본의 서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동아시아 전기소설의 일본 전파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 《剪燈新話》 자체가 전해진 것은 朝鮮의 그것과 비슷하다. 구체적으로는 김시습이 <전동신화를 읽고>라는 시를 지은 보다는 약간 늦은 1482년에 禪僧 周麟이 <鑑湖夜泛記>를 읽고 쓴 <讀鑑湖夜泛記>의 시가 나왔다.¹⁴⁾ 조선의 경우 김시습에 의해 곧바로 자국의 문화를 담은 《금오신화》를 만들어 냈지만 일본에서는 16세기 중반에는 이 책을 구입했다는 기록이 있고(禪僧 策彦), 또 일부 작품의 번역이 나와서 전파되고 있었다.

13) 林羅山 識語: 壬寅之冬十月初五, 於旅軒燈下而終朱墨之點, 書生林信勝識之.

14) 澤田瑞穂 <剪燈新話の舶載年代>, 《中國文學月報》제35호, 1937. 喬炳南의 <剪燈新話對日本江戶文學的影響>에서 인용함.

16세기 중반에 나온 《奇異雜談集》(1532-1554)에는 《전등신화》 속의 작품 중에서 <金鳳釵記>, <牡丹燈記>, <申陽洞記> 등이 번역되어 실려 있다.

번역가의 대열에는 앞에서 언급한 林羅山이 직접 참가하기도 하였다. 그는 1600년 아직 그의 나이 18세에 불과했을 때 <牡丹燈之詩>와 <牡丹燈詩並序>를 지은 바 있는데 이는 조선간본 《전등신화구해》를 보기 2년전의 일이다. 그리고 그의 나이 61세 때에는 《奇異怪談抄》 안에 <금봉차기> 한 편을 번역하여 넣고 있다. <牡丹燈詩並序>에서 그는 “옛날 山陽才人이 지은 《전등신화》 속에 <모란등기>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庚子年(1600)에 나는 이 글을 얻어 읽고 喬生이 저승의 요사한 여인에게 감동 받는 내용임을 알았다. 그것은 瞿佑의 작품으로서 나는 이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다가 辛丑年(1601)에 서점에서 이 책을 보고 즉시 사들여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朱墨의 붓으로 구두점을 찍으며 이 책과 함께 하며 즐기기를 오래 하였다”¹⁵⁾라고 하였는데 현재 내각문고본 《전등신화구해》의 마지막 구절과 부합하는 말이어서 당시 임라산의 독서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靈怪草》(1648-1651)에는 총14편의 번역작품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8편이 《전등신화》에서 온 것이니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겠다. 그 8편은 <藤穉醉游聚景園記>, <翠翠傳>, <牡丹燈記>, <愛卿傳>, <綠衣人傳>, <涓塘奇遇記>, <申陽洞記>, <太虛司法傳> 등이다.

일본에서 1666년에 나온 《伽婢子》는 淺井了意(1612?-1691?)에 의해 쓰여진 전기소설 번안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 《剪燈新話》에서 18편, 《剪燈餘話》에서 2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金鰲新話》에서 2편을 뽑아서 번안하고 있다. 《가비자》에서는 모든 이야기의 소재와 줄거리, 주제 등을 각국의 문헌에서 차용해 왔지만 이를 자국의 인명과 지명 그리고 풍속을 넣어 새로운 작품으로 번안을 하여 일본적인 문화수용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앞서의 《영괴초》처럼 원제를 넣지 않고 번안한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모란등기>가 <牡丹燈籠>과 같이 바뀐 것이 그나마 가장 근접한 것이고 다른 작품들은 번역체로서 전혀 다른 이름을 써넣었다.

15) 江本裕 校訂《伽婢子》(平凡社, 1987) 81-82쪽, 坂卷甲太 《淺井了意 怪異小説研究》(新典社, 1990)206-207쪽. 李學圃 <동아시아 전기소설의 연원과 전파>(동방문화학회 문학연구회 발표논문집, 2000.2)재인용.

그 이후에 나온 괴이소설 《兩月物語》(1769)에도 《전등신화》의 영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愛卿傳>의 영향하에 이뤄진 <淺茅が宿>은 훗날 영어로 번역되어 서양으로 전해지기도 하였다. 《전등신화》는 후에 慶長연간(1596-1614)활자판이 나오고 慶安원년(1648)에 再刻되었다고 한다. 또 고활자본(1615-1622)도 있었다고 한다.

1917년 중국의 武進사람 董康은 일본 慶長, 元和연간에 나온 활자본 《전등신화구해》를 구하여 상해로 돌아가 원래의 주석을 삭제하고 誦芬室총간의 일종으로 刊行하여 다시 중국 내에 널리 전해지게 하였다. 그 후 중국의 대부분 판본은 동강본을 근거로 하게 된다. 1931년에는 上海 華通書局이 鉛印字로 간행하고, 1935년에는 鄭振鐸이 生活書局에서 내던 《世界文庫》에 포함시켰다. 1958년 上海도서관에서 명대 복건성 建陽刊本 《전등신화》 3책을 찾아냈으나 완전하지 않은 판본이었다. 1957년 古典文學出版社에서는 周夷의 교본으로 현대활자본 《剪燈新話(外二種)》를 냈고 1981년 상해고적출판사가 이를 다시 찍었다.¹⁶⁾

한편 임진왜란 이후 한국에서 전파가 거의 되지 않던 《금오신화》는 1927년 최남선이 일본에서 1884년 간행된 《금오신화》(평점본)을 역수입하여 국내에서 소개함으로써 비로소 널리 전해지게 되었다.

베트남에서는 《剪燈新話》가 전파된 이후 이를 본받아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엮은 전기소설집 《傳奇漫錄》(약1530-1547)이 만들어졌다. 阮嶼에 의해 쓰여진 이 《傳奇漫錄》은 베트남 문학사에서 소설의 효시로 일컬어질 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소설집으로서 우리 나라의 《金鰲新話》와 비유가 되는데 총20편으로 《剪燈新話》의 체제와 분량을 따르고 있어 《금오신화》보다는 네 배의 분량이 된다. 내용상 남녀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염정류가 5편이고 신선이나 저승세계를 다루거나 異界의 인물과 교유하거나 이를 퇴치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신괴류가 15편으로 나뉜다.¹⁷⁾ 최근 국내의 학자들의 연구결과 《전기만록》은 비록 《전등신화》의 내용을 보고 경계할 만한

16) 양자간의 차이는 周夷의 이름을 周楞伽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과 전언을 일부 고쳐 쓴 것 등이 다를 뿐이며 기타 원문의 경우는 차이가 없음.

17) 全惠卿 <금오신화·전등신화와 비교를 통해 본 베트남의 전기만록>(동방문학비교연구회, 발표논문집, 2000.2) 참조.

것이 있어¹⁸⁾ 이를 참고하여 창작하였지만, 더 많은 부분에서 베트남의 설화적 소재와 토착 신앙 및 지형적 문화적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애국심을 고취하고 요망한 귀신을 퇴치하고 정절을 고양하며 현실적인 정치사회에 불만을 토로하는 등 작자의 창작의도가 잘 표현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금오신화》에서도 조선의 역사적 현실과 현지 풍속을 잘 살리면서도 중국과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마찰이나 갈등요소가 드러나지 않는 것에 비하여 《전기만록》의 경우는 北朝(명나라)와 吳兵(명나라 군대)에 대해 노골적으로 배척하거나 반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전등신화》가 창작될 무렵에 베트남이 명의 지배를 받았던 시기(1417-1427)였으며 瞿佑가 하북성 保安에서 귀양을 살고 있을 시기에 명나라에서 대대적인 베트남 정벌을 단행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다. 현재 《전등신화》의 베트남 전과경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데 한가지 참고할 만한 단서를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周王의 보필을 잘 못했다는 이유로 62세에 귀양을 간 瞿佑가 78세가 되어 귀양에서 풀려나도록 주선하고 돌아온 그를 맞아 3년간이나 집안의 가정교사로 지내게 한 인물은 英國公 張輔라는 사람이다. 그가 瞿佑를 이처럼 생각하였음은 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혹은 그가 지은 《剪燈新話》를 읽었거나 알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바로 瞿佑를 사면시키기 10여 년 전쯤에 당시의 安南國(베트남) 정벌에 직접 참여하였던 인물이었다. 따라서 그의 베트남 정벌 때 《전등신화》가 전해졌을 가능성은 없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선의 경우, 중국소설의 대량 유입은 임진왜란 시기에 원군으로 참가한 명나라 군대에 의해서였다. 《三國志演義》의 전래가 그렇고 특히 關羽의 사당이 지어지고 關帝信仰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은 조선에 참전한 명나라 장수에 의해서 시작된 일이었다. 이는 분명 소설을 통한 문화교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베트남에서 《傳奇漫錄》이 나온 이후에 이를 본받아 《古怪卜師傳》, 《傳奇新譜》, 《傳記摘錄》, 《新傳奇錄》, 《傳聞新錄》 등의 작품들이 꾸준히 이어져 내려왔다. 베트남에서 《전기만록》은 식자층과 더불어 일반 독자들에게도 많은 주석을 통하여 읽혀진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 특유의 문자인 字喃으로

18) 阮嶼의 序文 “觀其文辭，不出宗吉藩籬之外(宗吉著剪燈新話)，然有警戒者”

음을 달아놓기도 하여 독자층이 널리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현대 베트남어는 물론 프랑스로도 번역이 되어 전하고 일본에서는 1998년 川本邦衛의 일어 번역본이 나왔고 한국에서는 2000년 朴熙秉의 한글 번역본이 간행되어¹⁹⁾ 동아시아 전기소설의 새로운 전파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상에서 《전등신화》의 동아시아 전파와 영향에 대해 소략하게 살펴보았다. 사실 명청소설의 해외전파 양상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기에는 지면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가장 전형적인 예로서 《전등신화》의 경우를 살펴본 것이다. 그것은 이 작품이 명대 초기에 나온 전기소설로서 중국내에서도 문인들의 환영을 받아 급속한 전파와 후세 작품에 영향을 끼치게 했는데, 역시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시일내에 동아시아 각국으로 전파하여 다른 작품에 비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했다는데 첫 번째 이유가 있다. 또한 명대 후기에 양산되어 나온 백화소설과 달리 문언으로 쓰여진 까닭에 비교적 용이하게 각국의 문인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는 사실도 이 작품이 각국 문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

5. 동아시아 각국의 중국소설 수용방식

중국소설이 전파되었을 때 동아시아 각국의 반응은 한결같지 않았다. 근세로 접어들면서 동아시아의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들은 과거의 동질성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면서 각국이 처한 독특한 문화적 환경과 인식에 바탕을 둔 새로운 독자 문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조선에서는 15세기 민족적 자각의 일환으로 민족 고유언어의 기록을 가능하도록 하는 한글 창제라는 역사적 과업을 달성하게 했으며 베트남에서도 13세기이래 한자를 응용하여 만든 민족문자 쯤놈(字喃)이 사용되고 있었다. 일본에는 이전부터 한자를 조차하여 만든 가나(假名)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한자문학의 수입을 곧바로 자국의 언어문자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정학적인 이유로 중국과 항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써왔으며 중국문학의 수입을 통해 중원문화의 정수를 직접 받아들이고

19) 완서지음/박희병옮김 《전기만록/ 베트남의 기이한 옛이야기》, 돌베개, 2000.12

심지어 스스로 한문학의 정통을 이어가려는 정신이 강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글이 창제된 이후 정책적으로 중요한 중국 문헌을 우리 글로 번역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지만 정작 문인들 세계에서는 그다지 번역문학이 성행하지 않았다. 《전등신화》의 수용이라는 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김시습이 독후감을 적은 시를 짓거나 이 작품의 영향을 받아 배경과 인물을 조선화한 《금오신화》를 지어 큰 개가를 올린 셈이지만 정작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이렇다 할 만한 번역본이 거의 나오지 못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일본의 경우, 16세기 중반에 우선 번역부터 시도하여 3편의 작품이 《기이잡담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와 같은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도 시도된 바 없는 소설의 주해서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 《전등신화구해》를 간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만약에 우리나라의 독자만을 위해 주석을 한글로 만들어 넣었다면 훗날 일본으로 전해져 널리 환영받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지만 국내의 독자층 저변확대에는 큰 몫을 했을 것이다. 또 안타까운 사실은 당시 《금오신화》가 거의 동시에 간행되었음에도 이를 아끼고 소중히 여겨 좀더 많은 판본을 찍어내거나 번역본, 혹은 주해본을 만들어 널리 유포시켰다면 훗날 일본으로부터 그네들이 만든 판본을 다시 들여와 우리 독자들에게 소개해야하는 수도는 겪지 않았을 것이며 20세기 마지막에서야 이웃나라를 450여년 동안 떠돌아다니던 조선간본 《금오신화》를 발견하는 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소설에 대한 문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보수성에 젖어있어 《매월당문집》을 만들 때도 그의 《금오신화》를 빼는 (혹은 누락시키는) 우를 범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것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때문에 《전등신화구해》를 거듭 간행하여 유포시키면서도 《금오신화》를 찾아내고 복원한다는 생각이나 혹은 중국작품을 번역하여 전파시킨다는 생각은 못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 《가비자》는 이미 거의 일본화된 번안소설로서 가장 자국의 독자를 의식한 작품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각국에서 만들어진 작품의 내용을 두고 보면, 《금오신화》에서 비록 작품의 배경을 조선으로 하고 인물을 조선의 인물로 설정했으나 《전등신화》에서 보여주는 문체적 특징이나 사상적 기조가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 대해 우호적 생각을 하고 있으며 발달된 중국 문화를 흠모하고 있던 조선 문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당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베트남의 《전

기만록》에서는 가까운 과거에 일어난 명나라 군사의 침략과 이에 얽히 사연을 그리다 보니 때로는 적대적 감정을 표출하고 애국심을 강조하기도 하며 자국의 설화적 소재와 토착의 신앙을 은연중에 내포시킨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하나의 소설작품을 가지고 수용하는 방식의 부분적인 차이는 당시 한자문화권의 동아시아 각국이 가지고 있던 특수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명청 장편소설 중에서 가장 널리 보급된 《삼국지연의》와 《홍루몽》의 국내 전파 양상을 비교해보는 것도 소설작품에 따라 중국과 한국의 독자층과 수용의 태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6. 결 론

중국고전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고전소설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는 동아시아 문화의 정체성을 고찰하고 비교 문화학의 기초를 닦기 위하여 매우 필요한 연구분야다. 더욱이 직접적으로 문화전파의 침범 역할을 하는 서사문학으로서의 고전소설이 어떠한 이유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해외 각지로 전해져 갔으며 또 현지에서는 어떠한 독자층을 형성하였으며, 토착 문화와의 문화 충돌을 겪으면서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앞으로 21세기의 열린 세계를 지향하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시급히 정리되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단지 중국문화의 한 부분에 대한 전파를 단순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의 문화전파와 문화교류를 보편적인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정립하는 것이며, 특히 장차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이끌고 나가야 할 한중관계의 본질적인 동질성과 이질성을 보다 명쾌히 분석하고자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고전문학 중에서 특히 고전소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중국소설의 전승과 수용의 실체를 파악하여 우리 문학의 발전과 상호 비교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로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명청시대는 중국문학사에서 문언소설과 백화소설이 동시에 비약적으로 발달한 시기다. 이 시기의 많은 작품들은 중국내에서는 물론 동아시아 각국, 즉 당시의 조선과 일본 그리고 베트남까지 널리 전파되어 각국의 문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명청소설이 해외 각국으로 널리 전해진 문화적 배경과 더불어 전파의 방식과 각국에서의 수용의 태도를 고찰하고 특히 명대 초기 문언소설의 대표작품인 《전등신화》의 간행과 전파에 중점을 두고 조선에서의 수용과 주해본의 간행 과정, 그리고 이 조선본 《전등신화구해》가 일본으로 전해져 일본 문단의 비상한 주목을 받으며 일본소설 《가비자》 등의 작품에 끼친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20세기 이후 중국으로 재수입되어 간 상황을 추적하였다. 한편 베트남에도 전해진 《전등신화》는 베트남 특유의 문화적 전통을 담아 《전기만록》으로 만들어 졌는데 이러한 상호 관련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명청소설의 해외 전파와 교류에 대한 연구는 근세 동아시아 문화의 동질성과 이질성의 근원적 문제를 파악하고 상호 교류의 구체적인 양상을 고찰하는데 중요한 예증이 될 것이다. 지난 수세기 동안 동아시아 문화는 수 천년 동안 공유해 왔던 동질성으로부터 차츰 탈피하여 개별적 이질성으로 분화하여 각자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 명청소설의 전파와 이에 대한 다양한 수용의 태도를 고찰하면서 이러한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21세기를 앞두고 다시 동아시아 각국은 세계 문명의 거대한 물줄기 속에서 동아시아 공통의 인식과 문화적 유대감을 재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00.12)

《참고문헌》

- 瞿佑著, 滄洲(尹春年)訂正, 垂胡子(林芭)集釋 《剪燈新話句解》, 臺灣 天一出版社 영인본, 1985
- 瞿佑等著, 周夷校注 《剪燈新話(外二種)》, 上海 古典文學出版社, 1957,
- 中國古典文學會主編 《域外漢文小說論究》, 臺灣學生書局, 1989
- 陳益源著 《剪燈新話與傳奇漫錄之比較研究》, 臺灣學生書局, 1990
- 민관동 《중국고전소설사료총고》, 아세아문화사, 2001

- 阮嶼지음, 박희병옮김 《傳奇漫錄; 베트남의 기이한 옛이야기》, 들베개, 2000
- 전혜경 <한중월 전기소설의 비교연구--전등신화·금오신화·전기만록을 중심으로>, 송실대박사논문, 1994
- 유태일 <전등신화·전등여화의 한국전래와 수용>, 《한국문헌학연구》, 아세아문화사, 1989
- 최용철·張本義 <금오신화 조선간본의 발굴과 판본에 관한 고찰>, 《민족문화연구》32호, 1999.12
- 황소연 <일본문학과 전등신화·금오신화>, 《동아시아 전기소설의 전파와 수용》동방문학비교연구회 제92차 학술발표회, 2000.2
- 이학주 <동아시아 전기소설의 연원과 전파>, 《동아시아 전기소설의 전파와 수용》동방문학비교연구회 제92차 학술발표회, 2000.2
- 최용철 <중국소설과 문화--전등신화의 간행과 조선에의 전파>, 《중국소설논총》제11집, 2000.2
- 李慶 <瞿佑生平編年輯考>, 《中國文哲研究通訊》제4권제2기, 1994.6 中央研究院中國文哲研究所
- 徐朔方 <瞿佑의 剪燈新話及其在近隣韓越和日本的回響>, 《小說考信編》수록, 上海古籍出版社, 1997
- 徐朔方 <瞿佑年譜>, 《小說考信編》수록, 上海古籍出版社, 1997
- 喬炳南 <剪燈新話對日本江戸文學的影響>, 《古典文學》第7集, 臺灣學生書局, 1985
- 陳益源 <關於剪燈新話的幾個誤解>, 《從繡紅記到紅樓夢》수록, 遼寧古籍出版社, 1996

[中文提要]

明清小說在東亞各國的傳播--以《剪燈新話》爲主

崔 溶 澈

明清小說在中國文學史上具有重要的意義，其中相當多的作品流傳到東亞細亞各國，對各國文學的發展，起了很大的作用。本論文主要探討明朝初年出現的瞿佑的《剪燈新話》的成書過程以及流傳情況。《剪燈新話》，雖然也算是在中國小說史上極爲重要的作品，但學界對它的關心並不是很大，

也沒有對它進行深入研究。但在東亞細亞各國，情況不一樣。此書在海外傳播，直接帶動韓國的漢文小說與日本江戶文學的蓬勃發展，越南的漢文小說《傳奇漫錄》也深受它的刺激啓迪。因此有的學者，特別強調《剪燈新話》簡直是一部具有世界性的文學名作。各國的研究學者對此書，以熱烈的關心加以研究。

《剪燈新話》在朝鮮的流傳，最早見於金時習的〈題剪燈新話後〉長詩。這是《剪燈新話》最早流傳海外的記錄。由此詩來看，金時習非常欣賞《剪燈新話》，不久之後他就創作韓國漢文小說的鼻祖《金鰲新話》（約成書於1465-1471）。成宗年間李邊曾編纂漢語教材《訓世評話》，其中包括一篇〈羅愛愛〉，就是來自《剪燈新話·愛卿傳》的一部分。16世紀初年（1506）朝鮮國王燕山君就下令謝恩使赴燕京購買《剪燈新話》與《剪燈餘話》等小說戲曲作品，稍候他又命令把此書刊印出來。可惜，不久之後由於政局劇變，此事未成結果。

在朝鮮文人社會，《剪燈新話》是經常被提出的話題，不管對此書的內容，各有不同的褒貶態度，但此書在朝鮮社會，一直流傳得很廣泛。壬辰倭亂（朝日戰爭）之前，《剪燈新話》曾以木活字出版，現存殘本藏於忠南大學圖書館。此書為四卷附錄一卷本，與早期明刊本體裁上同。在韓國《剪燈新話》流傳歷史上，最值得一提的是，《剪燈新話句解》的出版一事。明宗年間當代文化人物尹春年與漢語譯官林芑參與此書的註解與出版的工作。當時尹春年為校書館提調。署名滄洲（尹春年）訂正，垂胡子（林芑）集釋。從此以後，這個版本流傳到日本，在日本起了很大的影響作用。在國內也流傳得很廣泛，在朝鮮後期無數的版本繼續出現。曾在朝鮮各地刊行，

《剪燈新話》可能在十五世紀後半部流傳到日本，禪僧周麟文集裡有記載，曾讀過〈鑑湖夜泛記〉，《雜談奇異集》中的三篇也來自《剪燈新話》中，可見此書的日本傳播也算是比較早。但在日本文人社會裡真正流行的是，朝鮮刊本《剪燈新話句解》的傳播之後的十七世紀初。1601年日本文人林羅山購買《剪燈新話句解》，開始以朱墨筆加句讀點，第二年讀完了之

後，把原書的序跋文抄錄，自己也寫上識語。這時朝鮮刊本《金鰲新話》也流傳到他的手裡，他就加點訓點，出版了《道春訓點本金鰲新話》。由朝鮮流傳到日本的兩種傳奇小說，都為日本傳奇(怪奇)小說的發展起了不少的影響。十七世紀中葉淺井了意的《伽婢子》，共有68篇故事，其中來自《剪燈新話》的18篇，來自《剪燈餘話》的2篇，還來自《金鰲新話》的也有2篇。十八世紀還出現上天秋成的《雨夜物語》。到了民國六年(1917)董康根據日本慶長元和年間活字本《剪燈新話句解》，刪去註解部分在上海翻印，才把此書重新流傳到中國。這是東亞細亞文化交流上的一樁佳話。

《剪燈新話》在東亞各國的傳播上，越南也未例外。十六世紀前半部是，《剪燈新話》在東亞各國上極為盛行的一段時期。這時朝鮮明宗年代，由尹春年等重視此書，與林芑共同刊出《剪燈新話句解》，日本則在這個時候出現《奇異雜談集》。越南的著名文人阮嶼就在這個時候(약1530-1547)創作《傳奇漫錄》，其中相當多的作品受到《剪燈新話》的影響，比如〈木棉(綿)樹傳〉一篇就是〈牡丹燈記〉前翻版，又如〈那山樵對錄〉的前半段，脫胎於〈天台訪隱錄〉，〈金華詩話記〉與〈鑑湖夜泛記〉也有相似之處。但《傳奇漫錄》也有自己獨特的文化氣息，有時強烈表示中國(明朝)對越南的侵略或壓迫，有時包含越南固有文化傳統，因此更受到越南讀者的普遍歡迎。

總之，過去數世紀東亞各國的發展歷史各不相同，近世以來隨着各國的獨自文化之發達，逐漸離開漢字文化圈共同的文化意識。我們通過考察明代傳奇小說《剪燈新話》的東亞各國的傳播情形，可以了解到近世東亞文化的共同意識以及各國固有的個別性格。在新的世紀裡，世界逐漸重視東亞地區的文化，我們處於此地，應該對東亞文化的傳統與未來，對共同文化圈的遺產更需要清楚地認識。